

AI와 기독교 선교 · 제4강

길 위의 교회

AI 문명과 기독교의 미래

The Church on the Way: Christianity and Mission in the Age of AI

김종필 박사 Elijah J F Kim, PhD

네 번의 질문

1 어떤 문명인가?

제1강 · 문명

Threshold

2 누구의 권세인가?

제2강 · 권세

Power

3 인간은 누구인가?

제3강 · 인간

Image

4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제4강 · 교회

Way

1강은 시대를 읽었고, 2강은 권세를 읽었으며, 3강은 인간을 물었다. 이제 4강에서는 길을 묻는다.

제국은 교체되었지만 문명은 축적되었다

다니엘 2장

꿈의 신상

“왕이여, 그대는 금 머리와 은 가슴과 놋 배와 쇠 다리와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2:32)

금 머리

바벨론 제국
BC 605-539

은 가슴과 팔

메대-바사 제국
BC 539-331

놋 배와 허벅지

헬라 제국
BC 331-168

쇠 다리

로마 제국
BC 168-AD 476

쇠와 진흙이 섞인 발

분열된 여러 나라
(로마 제국 이후)
AD 476-현재

신상의 의미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미리 보여 주신 꿈의 계시

금 머리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은 가슴과 팔

메대와 바사의 연합 제국
(페르시아 제국)

놋 배와 허벅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쇠 다리

강력한 로마 제국

쇠와 진흙이 섞인 발

로마 제국 이후 분열된 여러 나라
(약하고 나누어진 나라들의 시대)

“그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신상의 발과 발가락을 쳐서 부수며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부서져 바람에 날아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그 분이 신상을 쳐서 큰 산이 되고 온 땅에 가득 하였느니라” (다니엘 2:34-35)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

영원히 파괴되지 아니함

다니엘 2장의 신상을 문명사로 읽는다면

금 머리

도시 · 성문법 · 관료제 · 천문학

BABYLON

은 가슴과 팔

제국 행정 · 왕의 길 · 우편 · 다민족 통치

MEDO-PERSIA

놋 배와 허벅지

철학 · 논리학 · 과학 · 코이네 헬라어

GREECE

쇠 다리

성문법 · 시민권 · 도로 · 수도교 · 공학

ROME

ROME ≠ ROME ALONE

ROME = ACCUMULATED CIVILIZATION

서기 100년의 로마인을 2026년 보스턴으로 데려온다면

A Thought Experiment



서기 100년 · 로마



비행 · 대서양을 건넌다



영상통화 · 얼굴을 보며 말한다



뇌-기계 연결 · 생각이 신호가 된다

스마트폰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며 대화한다. 비행기가 수백 명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넌다.
MRI가 몸을 자르지 않고 속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라틴어와 헬라어와 철학에 관해 즉시 대답한다.

“Any sufficiently advanced technology is indistinguishable from magic.”
충분히 발전한 기술은 마법과 구별되지 않는다. — Arthur C. Clarke

AD FUTURUM

What seems impossible today?

AGI?

ASI?

BCI?

Longevity?

Human-AI
Integration?

Posthuman?

Singula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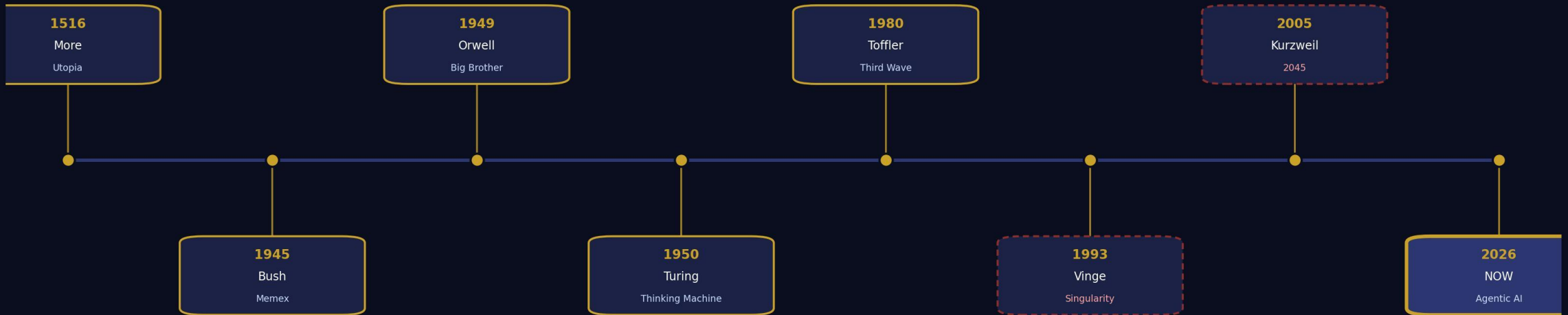
다만 절제해야 한다. 모든 SF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Imagination $\neq$ Prediction. Prediction $\neq$ Inevitability.

그러나 — Impossibility today $\neq$ Impossibility tomorrow

과거의 불가능이 오늘의 일상이 된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가능성을 어제의 상식만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인류가 상상했던 미래는 자주 현실이 되었다

THE LINEAGE OF IMAGINATION



때로는 예상보다 늦게, 때로는 전혀 다른 형태로 실현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상처럼 듣는 AGI와 ASI와 특이점도 무조건 공상으로 치부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공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몇 년 뒤 무엇이라고 불리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어디쯤인가

A Scenario Planning Window — Not a Prophecy



This is not a prophecy. It is a scenario planning window.

2,778명의 AI 연구자를 조사한 대규모 연구는 “인간보다 모든 과제를 더 잘 수행하는 기계”에 대해 2027년까지 10%, 2047년까지 50%의 확률을 부여했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50% 시점 예측은 2061 → 2050 → 2047로 앞당겨져 왔다.

미래를 예언하지 말라.
그러나 미래를 상상할 능력을 잃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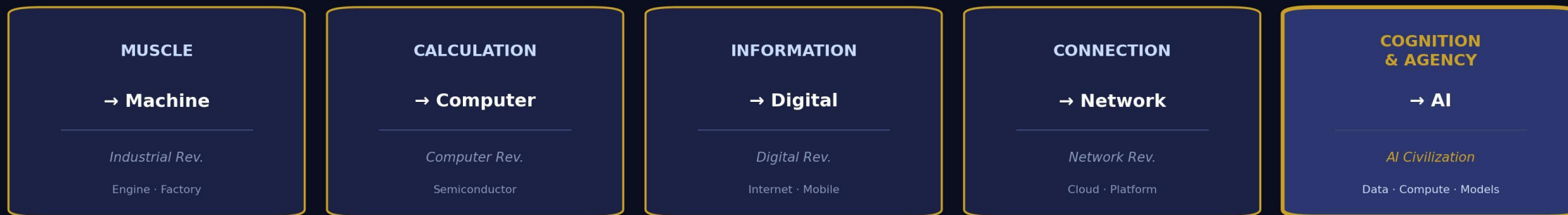
우리는 파도를 보고 있는가 지각판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는가

문서를 더 잘 만들고, 영상을 더 빨리 만들고, 포스터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이 거대한 지각변동의 해변에서 물결 하나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AI 문명은 경제와 권력, 노동과 전쟁, 교육과 정치, 생명과 의료, 가정과 관계,
도시와 이동, 진리와 종교,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다시 묻고 있다.

인류 문명의 다섯 번의 위임

FROM MUSCLE TO AGENCY — The Five Transfers of Human 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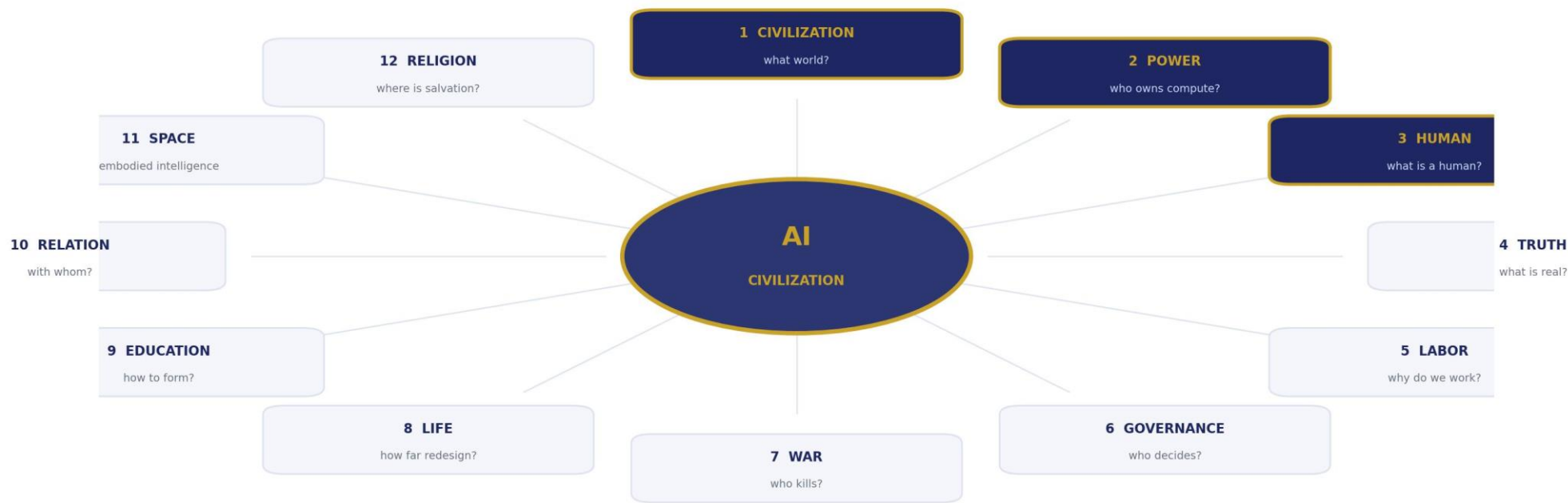


FROM MUSCLE TO AGENCY — The Five Transfers of Human Power

산업혁명은 세계를 기계화했다. 정보혁명은 세계를 디지털화했다. 네트워크혁명은 세계를 연결했다.
그리고 AI 혁명은 그 기계화되고 디지털화되고 연결된 세계에 지능을 부여하고 있다.

인류가 힘과 계산과 정보와 연결과 지성까지 넘겨준 뒤, 인간에게 남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AI 문명이 다시 쓰고 있는 열두 개의 판



The three in navy were covered in Lectures 1-3.

나는 지난 세 강의에서 문명과 권세와 인간이라는 세 판만을 살펴보았다.
오늘은 이 전체 문명 속에서 교회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묻겠다.

1~3강이 관찰한 다섯 개의 상승 곡선



Church?

다섯 개의 곡선이 동시에 올라간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 여기서 1~3강의 회수를 끝낸다. 이제부터가 제4강의 새로운 내용이다.

첫 번째 변화 — 정보 부족에서 의미 부족으로

From Scarcity of Information to Scarcity of Meaning



AI 시대의 선교 문제는 복음 정보를 어떻게 더 많이 전달할 것인가만이 아니다.
무한한 정보 가운데 무엇이 참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이다.

복음은 정보의 문제이기 전에 의미의 문제다.

두 번째 — 검색에서 답변으로, 답변에서 행동으로

From Search to Answer to Action

Google 시대

내가 찾는다

I search

Generative AI

AI가 답한다

AI answers

Agentic AI

AI가 나를 대신하여 행
동한다

AI acts for me

다음은?

AI가 무엇을 선택할지
추천한다

AI decides for me?

그러므로 교회의 문제는 information이 아니라 discernment가 된다.

◆ 정보를 더 많이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무엇을 선택할지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From Knowledge to Authority

어제의 물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권위의 자리에 본문이 있었다

오늘의 물음

“ChatGPT는 뭐라고 합니까?”

권위의 자리가 이동하고 있다

Who interprets reality for us?

누가 우리를 위해 현실을 해석하는가

AI가 틀린 답을 준다는 것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AI에게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 진실의 위기

The Crisis of Truth

Deepfake

Synthetic Media

AI Persuasion

Hallucination

Personalized
Misinformation

Stanford AI Index 2026 — 책임 있는 AI 벤치마크가 실제 배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AI 관련 사고 기록은 2024년 233건에서 2025년 362건으로 증가했다.

Digital Literacy

디지털 문해력

AI Literacy

AI 문해력

Truth Literacy

진실 문해력

가장 위험한 것은 거짓의 증가가 아니다. 가짜가 흔해지면 진짜도 부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이것을 "거짓말쟁이의 배당(liar's dividend)"이라 부른다.

The Crisis of Relationship

AI Companion

언제나 응답한다

AI Counselor

판단하지 않는다

AI Teacher

지치지 않는다

AI Pastor?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문제다. 실제 인간관계는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고, 판단하며, 지치고, 나에게 맞추지 않는다.
레비나스가 말했듯 타자의 얼굴은 나의 기대를 배반하고 나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바로 그 저항이 나를 윤리적 주체로 세운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지 않고 AI에게 고백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

여섯 번째 — 노동과 소명의 재정의

Work, Vocation and Human Worth

AI가 사무 노동을 자동화하고 로봇이 육체 노동까지 담당할 때,
기독교의 소명 신학(vocation theology)이 다시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Work ≠ Employment

창세기 2장의 노동은 타락 이전에 존재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창조의 명령이다(창 2:15).

직업이 사라져도 인간의 소명은 사라지는가?
인간의 가치는 생산성인가?

◆ 제3강의 *Imago Dei*가 여기서 교회의 실천 윤리가 된다 — *Competence ≠ Worth*.

Two Competing Stories of Salvation

CHRISTIAN GOSPEL



TECHNOLOGICAL SALVATION



AI civilization is a competing story of the human future.

로잔 운동의 AI·트랜스휴머니즘 자료도 기술이 새로운 형태의 구원(salvation)과 구속(redemption)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선교적 문제로 명시하고 있다.

기독교와 AI가 싸운다는 뜻이 아니다. AI를 둘러싼 인간의 구원 서사가 복음과 경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상과 다른 답을 제시한다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AI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AI 시대가 왔는데도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 그러나 바로 다음 ▼

두 번째 위험은 AI를 사용하다가 교회 자신이 AI처럼 되는 것이다.

효율

속도

성과

최적화

데이터

이것만 교회의 기준이 되는 순간이다.

How much AI should the Church use? → What kind of Church must we become?

AI 시대의 새로운 문해력

Prompt Literacy만으로는 부족하다

▲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

Reading Literacy

AI Literacy

Biblical Literacy

Historical Literacy

Visual Literacy

Moral Literacy

DISCERNMENT

분별

◆ 프롬프트를 잘 쓰는 법만 가르치면 도구의 숙련에 그친다. 분별은 도구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지혜 있는 자처럼 하여 세월을 아끼라”(엡 5:15-16)

Ad Fontes — 근원으로 돌아가라

종교개혁의 구호가 AI 시대에 다시 살아난다

Hebrew

Greek

History

Context

Manuscripts

Commentaries

AI를 이용하여 원어 성경으로 돌아가자.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역사와 문맥과 사본과 주석에 접근하는 비용이 인류 역사상 가장 낮아졌다. 종교개혁자들이 꿈꾸던 일이 지금 가능해졌다.

그러나 AI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AI와 우리를 판단하게 하라.

그렇다면 물음이 하나 더 남는다. 로마의 길리 복음화를 예비했고, 구텐베르크의 인쇄가 종교개혁을 촉진했고,
대항해 시대의 바닷길이 해외 선교를 가능하게 했다면 — AI는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가?

유대적 말씀 형성 전통에서 배운다

기독교 교육법과 동일시하지 않되, 그 원리를 배운다

שְׁמָע

Shema

듣고 반복하여 기억한다

הָגָה

Hagah

읊조리고 묵상한다

מִדְרָשׁ

Midrash / Derash

묻고 탐구하고 적용한다

מִשְׁנָה

Mishnah

반복되고 전승되는 가르침

גְּמָרָ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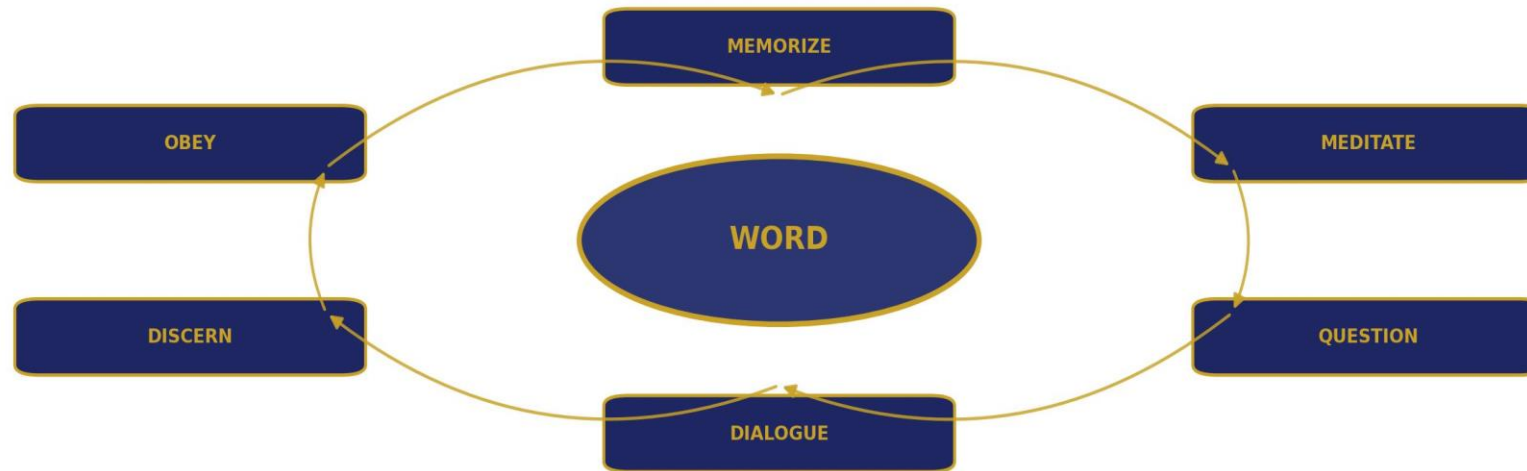
Gemara

질문과 논쟁과 해석의 축적

AI가 즉시 정답을 주는 시대에 이 전통의 논쟁적 학습 구조는 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현대적이다.
탈무드는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논쟁의 기록이며, 소수 의견까지 함께 보존한다.

마찰이 학습의 방해물이 아니라 학습의 방법이다.

MEMORIZE → MEDITATE → QUESTION → DIALOGUE →
DISCERN → OBEY



AI stands outside as assistant. The Word stands at the center.

AI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AI는 바깥의 조력자(assistant)다.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두 극단을 거부한다

Christian Discernment

AI Utopianism

AI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기술이 죄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는다

Christian Discernment

분별한다

숭배하지 않고 악마화하지 않는다

AI Apocalypticism

AI가 인류를 파괴할 것이다

두려움은 세밀한 구별을 불가능하게 한다

AI를 숭배하지 않는다. AI를 악마화하지 않는다. AI를 분별한다.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1-22)

◆ 두 극단의 공통점 — 둘 다 생각하기를 멈춘다. 분별은 셋 중 가장 어렵고 그래서 가장 드물다.

기독교 종말론의 중심은 디스토피아가 아니다

Antichrist가 아니다

666이 아니다

AI가 아니다

ASI도 아니다

기독교의 마지막 단어는

NEW CREATION

새 창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계 21:5)

따라서 기독교는 미래를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망 때문에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공동체다.

◆ 다니엘의 제국들은 모두 지나갔다. 로마도 영원하지 않았다. 컴퓨터 제국도 예외일 수 없다.

도발적으로 묻는다

24시간 상담한다

수천 개 설교를 기억한다

원어를 분석한다

성경 전체를 검색한다

맞춤형 설교도 한다

그렇다면 — Can AI be a Pastor?

목회는 정보 제공만이 아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책임지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사람을 사랑하고, 때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다.

Pastoring is embodied presence.

◆ 욥의 친구들은 이레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함께 앉아 있었다(욥 2:13). 그들의 문제는 침묵이 아니라 입을 연 뒤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교회도 바뀌어야 한다

AI-Ready Church의 네 역량

교회가 인간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기술을 거부하거나 교육을 거부하거나 AI를 금지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AI Literacy

기술을 이해한다

최소한의 개념과 한계를 안다

AI Theology

신학적으로 해석한다

도구·권세·우상의 범주로 분별한다

AI Ethics

책임 있게 사용한다

투명성·책임성·비밀보호를 지킨다

AI Mission

복음을 위해 사용한다

번역·교육·돌봄·연결에 쓴다

Adoption without Discernment is not Mission.

◆ 분별 없는 도입은 선교가 아니라 유행이다.

Every Church Needs an AI Covenant — 규정집이 아니라 공동체적 언약

설교 작성에 AI를 어디까지 사용하는가?

상담 정보를 AI에 입력해도 되는가?

교인 개인정보는 어떻게 다루는가?

어린이·청소년의 사용 지침은?

AI 생성 이미지는 어떻게 표기하는가?

딥페이크와 합성 음성은?

저작권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AI 번역의 검수 책임은 누구인가?

AI 상담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그리고 이 언약은 다섯 원칙 위에 세운다

투명성

책임성

비밀보호

형성 우선

인간 명령권

“언약”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다. 규정은 지키거나 어기는 것이지만,
언약은 함께 만들고 함께 책임지는 것이다.

◆ 그 작성 과정 자체가 공동체의 분별 훈련이 된다. 분별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은사다(고전 12:10).

목회자의 가치가 다시 정의된다

AI는 목회자의 경쟁자가 아니다

AI보다 많은 정보를 아는 목회자가 되려 하면 진다. AI보다 빨리 성경 구절을 찾으려 해도 마찬가지다.
The pastor's calling was never to be a search engine.

정보 전달자



Wisdom Guide

지혜의 안내자

콘텐츠 제작자



Spiritual Formator

영적 형성자

조직 관리자



Community Builder

공동체 건축자

정답 제공자



Discerning Companion

분별하는 동반자

강단의 사람



Embodied Shepherd

몸으로 있는 목자

목회자는 검색엔진이 되려 한 적이 없다. 그 부르심은 처음부터 달랐다.

교회는 AI를 교회 안에서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

노동	교육	의료	감시	전쟁	인간 존엄	아동
노인	장애	빈곤	환경			

이 전통은 새롭지 않다. 라인홀드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개인 윤리와 집단 윤리의 차이를 논했고, 본회퍼는 책임 윤리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세상 한복판에서 결단해야 함을 보였으며, 아브라함 카이퍼는 “단 한 치의 땅도” 그리스도의 주권 밖에 있지 않다고 선언했다.

교회가 AI 윤리를 교회 담장 안에서만 논하면,
세상은 교회의 언어 없이 AI 문명의 규범을 결정할 것이다.

◆ 그리고 그 결정은 결국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

200년 동안 우리는 이것을 선교라고 불렀다

Cross-Cultural Mission

내 언어 → 다른 언어
내 문화 → 다른 문화
내 세계관 → 다른 세계관

선교사는 언어를 배우고 문화충격을
견뎠다

Going Mission

“가라”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지리적 경계를 넘어갔다

Sending Church

선교사는 가고
본국 교회는 보내고
기도하고 후원했다

파송과 후원의 구조

Mission Ecosystem

교단 선교부 · 선교단체
학교 · 병원 · NGO
출판사 · 방송 · 신학교

복음과 인간의 필요 사이를 메웠다

이것은 잘못된 선교가 아니었다. 수많은 희생과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위대한 선교의 유산이다.
문제는 복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는 세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AI가 선교의 “마찰 비용”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다

과거 선교의 다섯 장벽



이것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선교 “구조”의 변화인 이유다.
다섯 장벽이 하나씩이 아니라 동시에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구조가 바뀌면 전략이 아니라 상상력이 바뀌어야 한다.

AI는 교회에 무엇을 돌려줄 수 있는가

Time 시간	Language 언어 접근성	Scale 확장성	Access 접근성	Knowledge 지식 접근	Connection 연결
Creativity 창작 능력	Efficiency 행정 효율	Personalization 개인화	Memory 조직의 기억	Analysis 분석	Reach 전파 범위

What will the Church do with the time AI gives back?

AI가 돌려준 시간으로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효율의 논리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복음의 논리

◆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교회가 AI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AI 선교의 네 가지 함정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네 문장

Translation ≠ Incarnation

번역했다고 현지화된 것이 아니다

언어를 옮기는 것과 그 문화 속에 사는 것은 다르다

Information ≠ Discipleship

복음정보를 전달했다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니다

예수는 강의를 개설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다

Reach ≠ Relationship

조회수가 선교의 열매는 아니다

닿았다는 것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다르다

Scale ≠ Faithfulness

규모가 충성됨을 증명하지 않는다

아흔아홉을 두고 하나를 찾는 목자는 비효율적이다

The more digital mission becomes,
the more incarnational mission must become.

◆ AI가 번역을 담당할수록 선교사는 더 잘 들어야 하고, AI가 콘텐츠를 만들수록 선교사는 더 깊이 살아야 한다.

기독교의 무게중심은 이미 이동했다

The Great Re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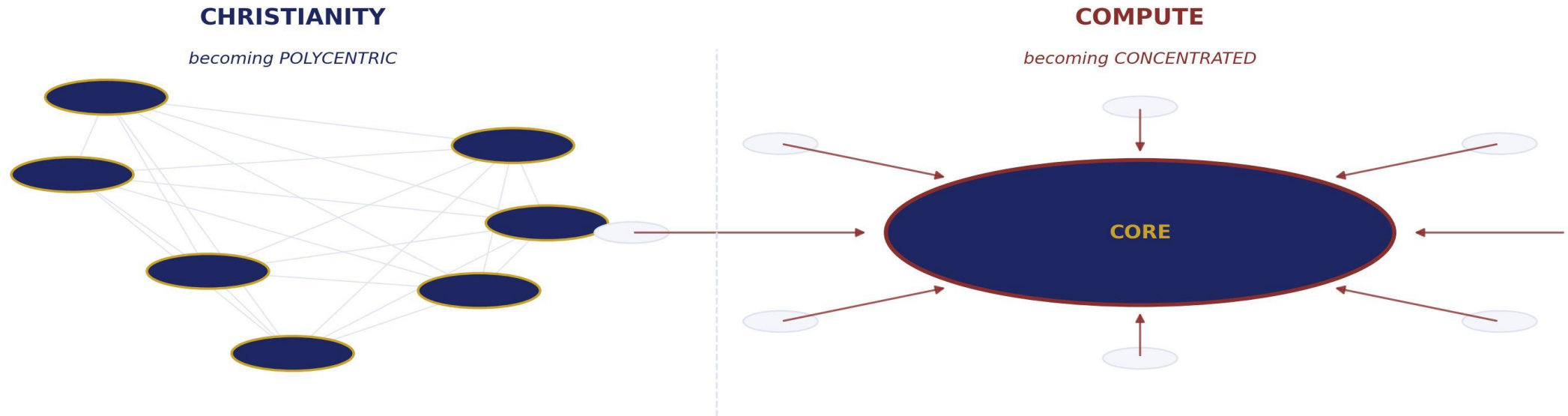


단순히 서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번역하고 협업하는 선교다.
그리고 이것은 AI 시대에 비로소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From Mission Center to Mission Network

그러나 AI의 지도는 정반대다

The Church Is Becoming Polycentric While Compute Is Becoming Concentrated



The Church is becoming polycentric while compute is becoming concentrated.

Stanford AI Index 2026 — 미국이 5,427개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AI 컴퓨트 공급망 역시 소수 기업과 지역에 크게 집중되어 있다.

곧 기독교는 다중심화되는데 컴퓨트는 집중화되고 있다.

We live in the same year, but not in the same century.

우리는 같은 해에 살지만 같은 세기에 살지 않는다

보스턴의 한 학생은

AI 에이전트를 사용한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의 학생은

전기가 없다

한쪽에서는

AGI를 논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깨끗한 물을 구한다

세계은행은 동·남부 아프리카에서 2023년 인터넷 이용자가 인구의 24%에 불과했고,
그래서 디지털화 정책에서 전기와 인터넷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두 개의 선교지, 두 개의 전략

COMPUTE RICH

전력

GPU

Cloud

Fiber

Capital

Talent

COMPUTE POOR

전력 부족

인터넷 부족

물 부족

교육 부족

인프라 부족

인력 부족

그러므로 "AI 선교"는 장소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을 뜻한다

Compute-Rich Mission

의미 · 외로움 · 정체성 · 진실 · AI 윤리 · 일자리 · 트랜스휴머니즘 · 디지털
제자훈련

정보 부족이 아니라 의미의 위기

Compute-Poor Mission

물 · 식량 · 전기 · 보건 · 교육 · 연결 · 번역 · 현지 리더십

AI는 목적이 아니라 지렛대(leverage)

AI는 선교의 격차를 줄일 것인가, 넓힐 것인가

Will AI Close the Missionary Gap — or Widen It?

가능성

AI가 성경 번역을 가속한다

저자원 언어의 번역 기간이 수십 년에서 수년으로 줄 수 있다

위험

컴퓨터 접근권이 있는 교회만 AI 능력을 독점한다

새로운 선교적 종속이 발생할 수 있다

Digital Colonialism?

Compute Colonialism?

Algorithmic Paternalism?

현지 교회를 AI의 소비자로 만들지 말고
소유자 · 판단자 · 생산자 · 공동설계자로 세워야 한다.

Ten Warnings to the Global Church

1 지성의 외주화

AI가 더 똑똑해지는 동안 인간이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되지 않는가

2 영성의 외주화

말씀과 씨름하지 않고 설교하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문을 생산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가

3 진리의 위기

딥페이크와 합성미디어 시대에 “무엇이 사실인가”를 분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4 권력의 집중

데이터·컴퓨트·모델을 소수가 장악할 때 교회는 권력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5 새로운 빈곤

컴퓨트 부국과 빈국의 격차를 누가 섬길 것인가

UNCTAD 경고 — AI의 혜택이 크게 집중되어 있고, 개발도상국의 3분의 1도 안 되는 국가만 AI 전략을 가지며, 118개국이 주요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Ten Warnings to the Global Church (continued)

- | | | |
|----|---------------|---|
| 6 | 노동과 인간 가치의 분리 | 인간의 경제적 효용이 낮아질수록 “생산성이 곧 가치가 아니다”라는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 7 | 감시와 자유 | AI가 인간을 이해하는 기술에서 평가·예측·통제하는 기술로 발전할 때 양심과 자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
| 8 | 전쟁의 자동화 |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판단에서 인간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도록 어떤 윤리를 말할 것인가 |
| 9 | 창조세계의 비용 | AI는 클라우드처럼 보이지만 거대한 전력·물·광물을 요구한다.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2030년까지 거의 두 배 |
| 10 | 복음의 상품화 | 조회수·engagement·규모를 영적 열매로 착각하지 않는가 |

**이 열 가지는 AI를 종말론적 공포와 연결하는 예언이 아니다.
시대의 권세를 분별하고 교회에 회개와 준비를 촉구하는 성경적 예언자적 증언이다.**

과거의 문화제국주의를 반성했듯 이제 알고리즘 제국주의를 분별해야 한다

과거 선교는 때때로 복음과 함께 서구의 언어·문화·교육·정치권력·경제 권력을 가져갔다는 비판을 받았다. AI 시대에는 새로운 질문이 생긴다.

누구의 언어로 모델이 훈련되는가?

누구의 문화가 정상으로 간주되는가?

누구의 윤리가 모델에 들어가는가?

어떤 언어는 풍부하고 어떤 소수언어는 빈약한가?

누가 서버를 소유하는가?

누가 데이터를 가져가는가?

실증 — UNCTAD는 AI 혜택의 집중과 국가 간 준비 격차를 이미 현실적 국제문제로 제기한다. 개발도상국의 3분의 1도 안 되는 국가만 AI 전략을 갖고 있으며, 118개국도 주요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Digital Colonialism? Algorithmic Imperialism?

AI 문명에 대한 기독교의 일곱 대항 서사

The Seven Christian Counter-Narratives of AI Civilization

AI CIVILIZATION'S PROMISE		THE CHRISTIAN ANSWER
Singularity	vs	Parousia
Posthuman	vs	Imago Dei
Longevity / Immortality	vs	Resurrection
Human Enhancement	vs	Sanctification / Theosis
Hyper-Connectivity	vs	Communion / Body of Christ
Artificial Omniscience	vs	Divine Wisdom & Sovereignty
Technological Eschatology	vs	Biblical Eschatology

THE SEVEN CHRISTIAN COUNTER-NARRATIVES OF AI CIVILIZATION

이 일곱은 단순한 AI 윤리 목록이 아니다. 창조론·인간론·기독교론·구원론·성화론·교회론·종말론을 AI 문명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 앞에 다시 세우는 작업이다.

Technological Eschatology vs. Biblical Eschatology

기술적 종말론

AI → AGI → ASI → Singularity →
Transhuman → Posthuman →
Digital Immortality

인간이 만든 지성이 역사를 바꾼다

성경적 종말론

Creation → Fall → Incarnation → Cross →
Resurrection → Parousia →
New Creation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역사를 완성한다

그러므로 특이점을 곧바로 적그리스도나 요한계시록의 특정 사건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지나친 단정이다.
오히려 특이점은 성경적 종말론의 성취가 아니라 기술문명이 만들어 낸 하나의 세속적 종말론으로 읽을 수 있다.

성경적 종말론은 미래를 맞히는 기술이 아니라 미래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아는 신앙이다.

권력의 우상 — 강한 것이 옳은 것이 되는 유혹

문화적 우월주의

Cultural Supremacism

AI는 모든 문화를 동일한 밀도로 학습하지 않는다. 영어권과 디지털 자료가 풍부한 문화가 훨씬 많이 대표된다. AI가 제시하는 “보편적 답”이 특정 언어권의 지식구조일 수 있다

AI-generated contextualization ≠ genuine contextualization

강대국·빅테크 숭배 — Compute Power ≠ Moral Authority

디지털 식민주의

Digital Colonialism

가난한 지역의 설교·사진·간증·언어·문화자료를 대량 수집해 선진국 서버에 저장하고, 정작 현지 교회는 소유권도 통제권도 없다면

선교적 선의 아래 디지털 종속이 생긴다

AI 콘스탄티주의 — Access to Power ≠ Prophetic Authority

알고리즘적 제국주의

Algorithmic Imperialism

과거 제국은 법과 군대로 규칙을 정했다. 이제 알고리즘이 무엇을 보여주고 감추고 추천할지를 결정한다

Are we shaping the algorithm, or is the algorithm shaping the Gospel we present?

컴퓨터 계급주의 — Who is being left behind?

◆ *AI가 문화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문화 안에서 살아본 것은 아니다.*

성과의 우상 —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유혹

경제적 우선주의

얼마를 절약했는가 · 몇 명을 줄였는가 · ROI는 얼마인가 —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금·교인 수·조회수로 평가하기 시작한다

Kingdom Value ≠ Market Value

생산성 극대주의

Faster → More → Cheaper → Better. 그러나 애도·회개·제자훈련·관계·성품 형성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Efficiency is a value. It is not the highest value.

데이터주의 (Dataism)

출석·헌금·조회수·클릭·체류시간은 유용하다. 그러나 믿음·충성·회개·거룩·사랑·희생·용서·소망은 계량되지 않는다

What can be measured is not necessarily what matters most.

기술관료주의

AI 전문가와 기술을 가진 대형교회, 그리고 기술이 없는 작은 교회 사이에 새로운 위계가 생긴다

성령의 은사보다 기술적 숙련도가 더 높은 권위를 갖는가

예수님의 3년 제자훈련은 현대 기업의 KPI 관점에서 놀랄 만큼 “비효율적”이다.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우 귀할 수 있다.

◆ 목회와 선교에는 빨라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통제의 우상 — 모든 것을 알고 예측하고 관리하려는 유혹

인간의 데이터화

AI 시스템은 사람을 행동 패턴·취향·소비·위치·관계·위험도·생산성으로 읽는다. 교회까지 인간을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면

A Person ≠ A Data Profile

개인맞춤형 신앙

나에게 꼭 맞는 설교·찬양·묵상·상담. 그러나 교회는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예배하는 곳이다

The Gospel does not exist to optimize my preferences.

편의주의 기독교

어려운 본문은 요약, 긴 책은 summary, 신학 논쟁은 AI 결론. 그러나 기독교 영성에는 없애서는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

Some friction is formative.

지식주의

AI는 삼위일체·칭의·종말론·원어를 몇 초 만에 설명한다. 그 결과 위험한 착각이 생긴다

Knowing about God ≠ Knowing God

선교의 탈육체화 — Connection ≠ Communion · Communication ≠ Incarnation

기술적 섭리론 — 가능성 ≠ 선함 · 발전 ≠ 섭리 · 혁신 ≠ 구속

디지털 온정주의 — Helping can become controlling

◆ 인간은 예측해야 할 객체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

Counter-Formation — 제3강의 인간론이 제4강의 교회론이 되는 자리

Power 권력	▶	Servanthood 섬김	Performance 성과	▶	Grace 은혜	Control 통제	▶	Trust & Surrender 신뢰와 내어드림
Scale 규모	▶	Faithfulness 신실함	Efficiency 효율	▶	Love 사랑	Data 데이터	▶	Personhood 인격
Virtuality 가상	▶	Incarnation 성육신	Technological Pride 기술적 교만	▶	Creatureliness 피조물임	Homo Deus 신이 된 인간	▶	Imago Dei 하나님의 형상

교회의 대답은 단순히 “AI를 잘 사용합시다”가 될 수 없다. 문명이 형성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사람을 형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대항 형성(counter-formation)이다.

세상이 능력을 형성한다면, 교회는 성품을 형성한다.
세상이 속도를 가르친다면, 교회는 인내를 가르친다.

AI 시대에 놀랍도록 현대적인 오래된 전통

שַׁבָּת

샤바트 — 안식

헤셀: 안식일은 “시간 속에 세워진 성전”이다. 공간을 정복하는 문명에 맞서 시간을 성화한다

생산하지 않는 날에도 인간은 인간이다

תְּבָרָה

하브루타 — 논쟁하는 학습

짜을 지어 질문하고 반론하며 씨름한다. 탈무드는 결론이 아니라 논쟁의 기록이며 소수 의견까지 보존한다

마찰이 학습의 방해물이 아니라 방법이다

פְּקוּדֵי נֶפֶשׁ

피쿠아흐 네페시 — 생명 보존

생명을 구하는 일이 거의 모든 계명에 우선한다. 한 생명이 온 세계와 같다(산헤드린 4:5)

효율보다 한 사람이 앞선다

בַּל תַּשְׁחִית

발 타쉬히트 — 파괴하지 말라

전쟁 중에도 과일나무를 베지 말라(신 20:19). 필요 없는 파괴의 금지가 창조세계 윤리의 뿌리다

AI의 에너지와 물의 비용을 묻는다

네 전통의 공통점 — 모두 “속도와 효율에 저항하는 제도”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AI 문명이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 랍비 시므하 부남: 사람은 두 주머니를 갖고 다녀야 한다 —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와 “나는 흠이요 재니라”.

FROM DIAGNOSIS TO MISSION

01

THE BIG PICTURE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02

DIRECTION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03

STRATEGY

어떻게 갈 것인가

04

ACTION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Understanding the Age is not enough.

The Church needs a direction, a strategy, and a way to walk.

시대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회에는 방향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며, 걸어갈 길이 필요하다.

The Great Mission Transition

1900

GEOGRAPHIC MISSION

- West → Rest
- Sending → Receiving
- Missionary → Mission Field
- Print → Translation
- Information Scarcity
- Physical Frontier

2026

POLYCENTRIC + DIGITAL + AI

- Everywhere ↔ Everywhere
- Network ↔ Network
- Church ↔ Church
- Human + AI
- Information Abundance
- Physical + Digital Frontier

The Gospel has not changed. The mission field has.
복음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세계가 바뀌었다.

From Sending Mission to Polycentric Mission

파송 선교에서 다중심 선교로



AI 시대에는 단순히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의미를 넘어,
교회 · 선교 · 마켓플레이스 · 기술 · 교육 · 미디어 · 디아스포라가 연결되는 Polycentric Mission Ecosystem으로 발전해야 한다.

다음 선교 시대를 한 국가가 이끌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함께 이끈다.

더 많은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자원을 연결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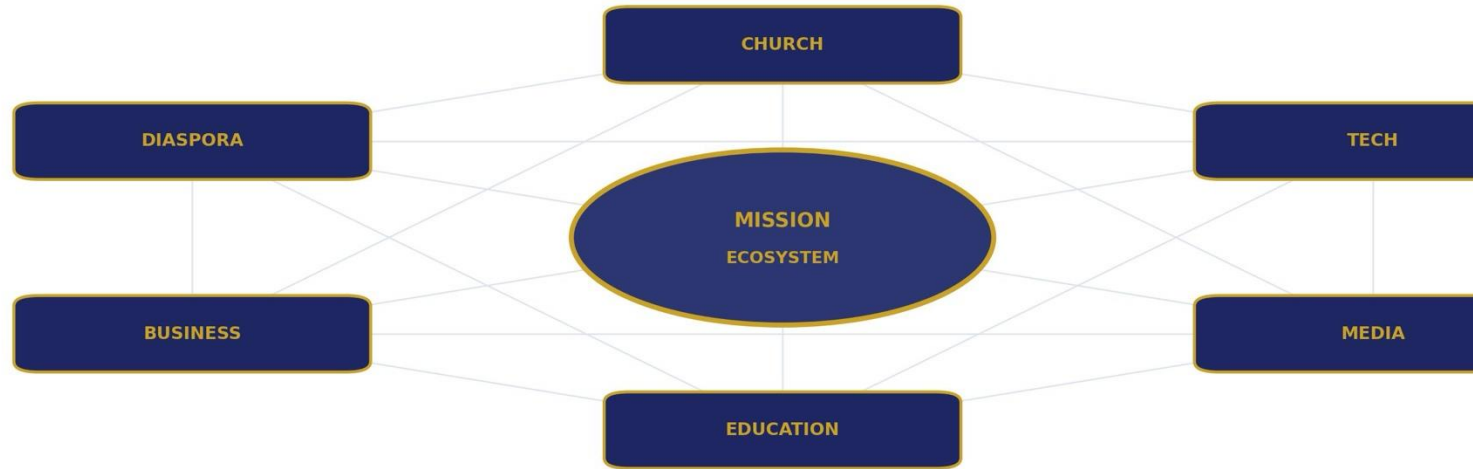
기존 선교

Church → Agency → Missionary → Field

AI 시대

교회 · 선교 · 기술 · 미디어
디아스포라 · 비즈니스 · 교육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된다

※ 새로 만들기 전에 연결하라



Connect before you build. Collaborate before you duplicate.

Connect before you build. Collaborate before you duplicate.
새로운 것을 만들기 전에 연결하라. 이미 있는 것을 중복하기 전에 협력하라.

From Mission Powerhouse to Mission Platform

PAST

지난 세대의 기여

선교사 파송 · 재정 지원
교회 개척 · 신학교 · 건축

NEXT

다음 세대의 사명

연결 · 훈련 · 역량강화
기술 공유 · AI 역량 · 남반구 동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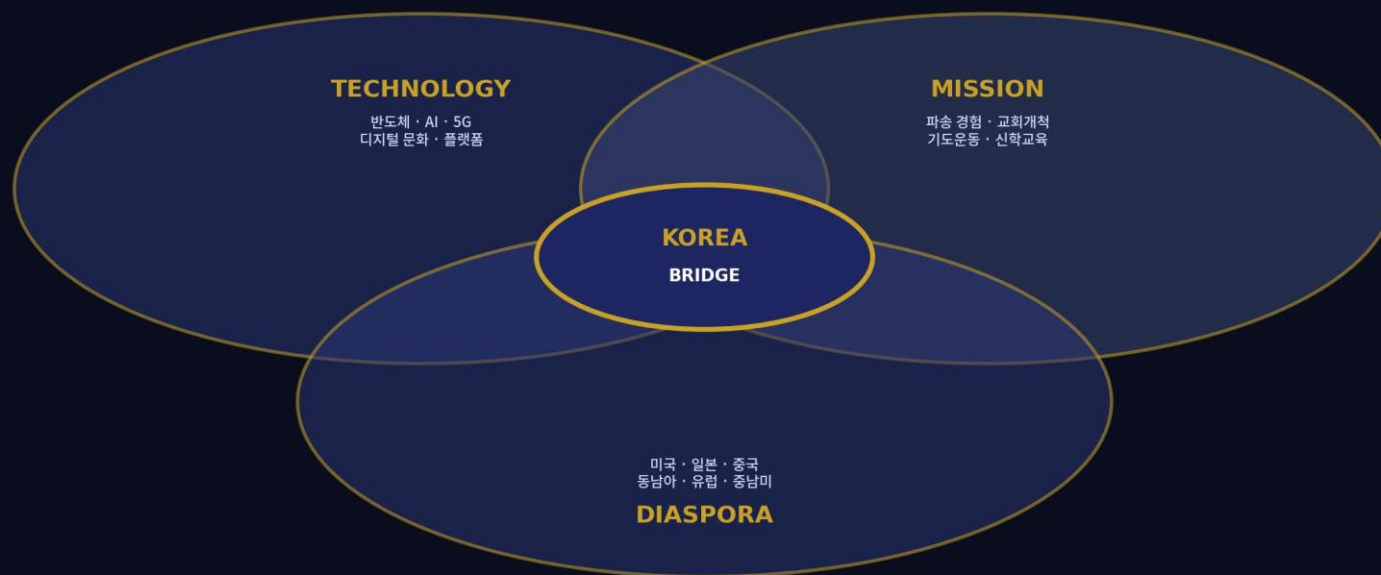
FROM SENDING NATION TO MISSION PLATFORM

한국교회의 다음 선교적 질문은 “몇 명을 파송했는가”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선교사를 연결하고 세웠는가”가 되어야 한다.

WHY KOREA?

Korea as a Bridge Civilization

기술 × 선교 × 디아스포라가 교차하는 자리



한국교회의 미래 선교 자산은 돈이나 인원만이 아니라 연결 능력(Connection Capacity)이다.

한국교회의 미래 선교 자산은 돈이나 인원만이 아니라 연결 능력(Connection Capacity)이다.

모든 교회에 AI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나누는 것

01	AI LITERACY	목회자 · 선교사 AI 기본교육
02	AI THEOLOGY	성경적 · 신학적 분별
03	AI MISSION TOOLS	번역 · 교육 · 연구 · 콘텐츠 · 행정
04	GLOBAL SOUTH ACCESS	저자원 지역의 AI 접근성 지원
05	AI MISSION NETWORK	교회 · 선교단체 · 개발자 · 기업 · 학교 연결

Do not create AI consumers. Raise AI-capable mission partners.

From Provider to Connector

선교사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는다. 더 본질적인 방향으로 이동한다.



AI can transfer information.
Missionaries must cultivate transformation.

AI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선교사는 사람과 공동체의 변화를 섬겨야 한다.

AI를 경쟁자가 아니라 선교 마찰을 낮추는 도구로

LANGUAGE ↓

번역 · 통역

DISTANCE ↓

온라인 훈련 · 네트워크

COST ↓

콘텐츠 · 행정

TIME ↓

연구 · 준비

EXPERTISE ↓

교육 · 자문



MORE TIME FOR PEOPLE

기도 · 현존 · 제자훈련 · 관계 · 현지 지도력 · 전도

AI가 줄여 준 시간을 무엇에 쓸 것인가가 이 전략의 핵심이다.

Use AI to reduce the friction of mission
so that missionaries can increase the presence of mission.

AI로 선교의 마찰은 줄이고, 사람을 향한 현존은 늘려라.

WHAT IS STRATEGY?

전략은 목표가 아니다

전략은 “어디에 힘을 집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strategy의 어원 στρατηγός(strategos)는 “군대를 이끄는 자”, 곧 장군이다.
장군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싸울지를 정하는 사람이다.

INFORMATION

전쟁터에 무엇이 있는가

INTELLIGENCE

무엇이 중요한가

DIRECTION

어디로 갈 것인가

STRATEGY

어디에 힘을 집중할 것인가

ACTION

누가 무엇을 언제 할 것인가

Information without Strategy produces paralysis.
정보는 많은데 전략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한다.

AI 시대의 교회에 부족한 것은 AI 정보가 아니라 Mission Strategy이다.

우리는 어디에 힘을 집중해야 하는가

FRONT 1

UNREACHED PEOPLE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지리적 미전도 종족 — 여전히 유효한 전선

FRONT 2

DIGITAL PEOPLE

알고리즘과 플랫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검색·추천·피드가 신앙 형성에 관여한다

FRONT 3

DISPLACED PEOPLE

디아스포라 · 이주민 · 난민 · 이동 인구

7,500만 이상이 국경을 넘어 살고 있다

FRONT 4

DISORIENTED PEOPLE

정보는 많지만 의미·정체성·소망을 잃은 사람들

AI 시대의 새로운 미전도 종족

1900년의 문제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2026년의 새 문제는 “모든 것을 듣지만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개념이 아니라 실행 전략으로

01

MISSION ARCHITECTURE

Connect the Systems

교회 · 선교 · AI · 데이터 · 플랫폼을 연결한다

02

MISSION ECOSYSTEM

Connect the People

교회 · 기업 · 개발자 · 선교사 · 콘텐츠 제작자를 연결한다

03

COGNITIVE MISSION

Enter the Mind

알고리즘이 형성하는 사고 · 세계관 · 정체성 속으로 들어간다

04

ATTENTION MISSION

Recover Attention

AI 시대의 가장 희소한 자원인 인간의 주의를 회복한다

05

PRESENCE MISSION

Recover the Human

초연결 시대에 몸 · 관계 · 공동체 · 성육신적 현존을 회복한다

ARCHITECTURE → ECOSYSTEM → MIND → ATTENTION → PRESENCE

DIRECTION IV

WHAT ABOUT ME?

거대한 담론을 한 사람에게로 가져온다

What should I LEARN?

무엇을 배울 것인가

What should I STOP?

무엇을 멈출 것인가

What should I START?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Whom should I
CONNECT?

누구와 연결할 것인가

Where should I GO?

어디로 갈 것인가

AI 문명의 변화는 거대하지만
순종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한다.

교회는 통계로 움직이지 않는다. 한 사람이 결단할 때 움직인다.

내가 이번 주부터 시작할 일

LEARN	AI 하나를 제대로 배운다
DISCERN	AI의 답을 그대로 믿지 않고 검증한다
CREATE	복음을 위한 콘텐츠 하나를 만든다
CONNECT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세대의 한 사람과 연결한다
PROTECT	매일 AI와 화면이 침범하지 못하는 시간을 만든다
BE PRESENT	한 사람을 직접 만나 듣고 기도한다
WITNESS	AI가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Do not merely use AI. Decide what kind of person AI will not make you become.

최종 전략 지도

네 층위가 하나의 사명으로 수렴한다

GLOBAL CHURCH

Polycentric Mission

KOREA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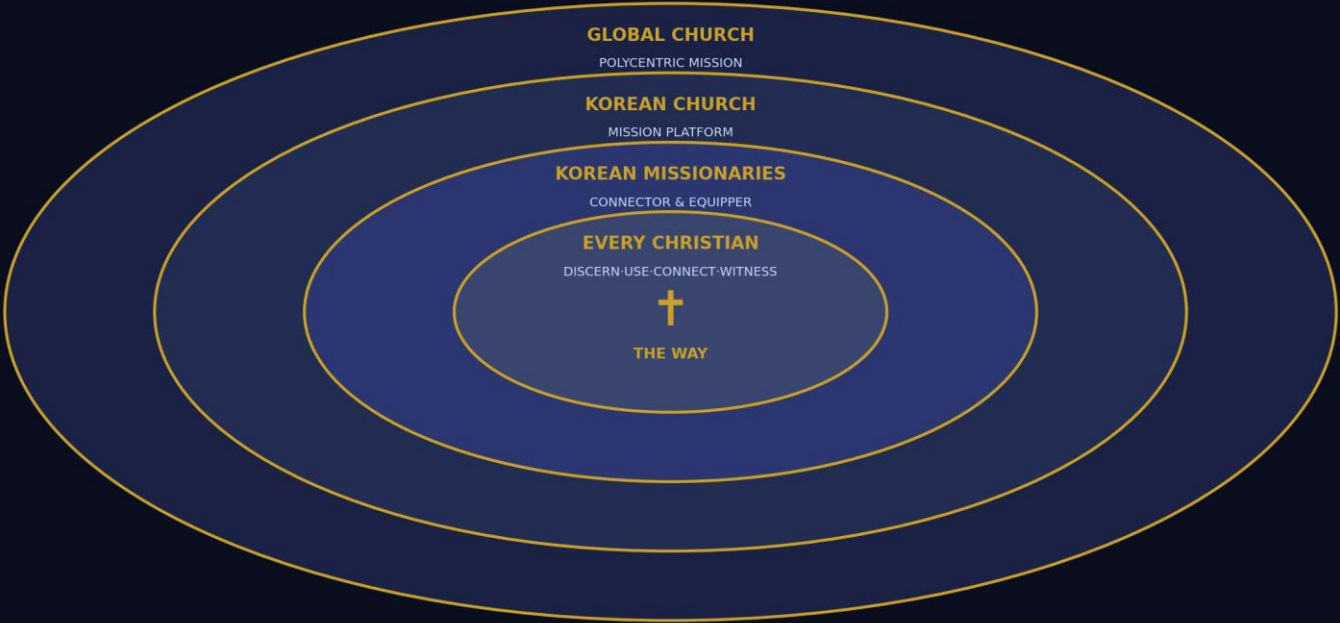
Mission Platform

KOREAN MISSIONARIES

Connector & Equipper

EVERY CHRISTIAN

Discern·Use·Connect·Witness



One Gospel. New Roads. New Strategy. The Same Mission.

One Gospel. New Roads. New Strategy. The Same Mission.

ἡ ὁδός

THE 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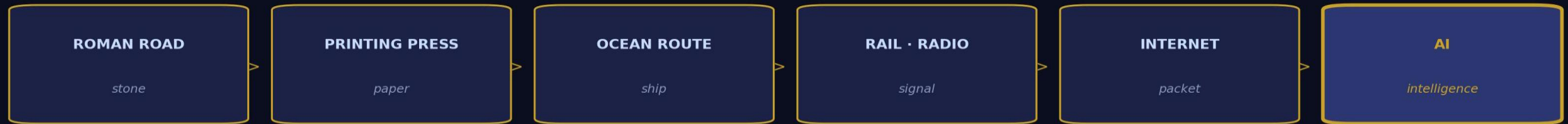
“만일 이 도(道)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 사도행전 9:2

초기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이름은 “길”이었다.
교회는 처음부터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길 위의 공동체였다.

문명은 길을 만들었고, 복음은 그 길을 따라갔다

Every Civilization Built a Road



Rome built roads of stone. AI builds roads of intelligence.

로마가 만든 것

Via Appia · 항구 · 로마 시민권 · Koine Greek · Pax Romana

AI가 만드는 것

Fiber · Satellite · Cloud · Model · Translation · Agent

로마가 도로 길을 만들었다면, AI 문명은 지성으로 길을 만든다.

그러나 길이 복음은 아니다

The Road Is Not the Gospel

Roman Road

≠

Gospel

Printing Press

≠

Gospel

Internet

≠

Gospel

AI

≠

Gospel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들을 사용하셨다. 로마의 도로 위로 바울이 걸었고,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로 성경이 퍼졌으며, 대항해의 바닷길로 선교사들이 건너갔다. 길은 복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길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길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길을 숭배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 길 위에서 복음을 산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선교 방법

INCARNATION

AI는 말을 생성할 수 있다. 설교문도, 기도문도, 위로의 문장도, 수백 언어의 복음 설명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은 정보의 전송이 아니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 요한복음 1:14

“거하셨다”는 낱말은 ἐσκήνωσεν — “장막을 치셨다”이다. 함께 사셨다는 뜻이다.

Christianity is not merely transmitted information.
The Gospel became flesh.

Presence is the New Scarcity

AI가 희소했던 것을 풍요롭게 만들 때, 무엇이 희소해지는가

BECOMING ABUNDANT

Knowledge
Translation
Content
Images
Answers
Speed

BECOMING SCARCE

Attention
Trust
Meaning
Wisdom
Relationship
PRESENCE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mbodied presence becomes missionary capital.

사람과 함께 있는 것 · 물어주는 것 · 손을 잡는 것 · 밥을 먹는 것 · 병자를 찾아가는 것 · 가난한 사람 곁에 서는 것
미래 선교의 핵심 자산은 더 많은 콘텐츠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의 현존이다.

결코 위임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Three Non-Negotiables

PRESENCE

현존

AI가 정보를 전할 수 있으나
곁에 있어 줄 수는 없다

RESPONSIBILITY

책임

일을 위임할 수 있으나
도덕적 책임을 위임할 수는 없다

WORSHIP

예배

예배문을 만들 수 있으나
예배자가 될 수는 없다

AI가 사랑의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의 언어와 사랑하는 존재는 같지 않다.

◆ 위임(delegation)과 이양(abdication)은 다르다. 청지기는 맡긴 것에 대해서도 책임진다.

Seven Commitments of the Church on the Way

- | | | |
|---|--------------------------|----------------------------|
| ① | 우리는 AI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 <i>Understand</i> |
| ② | 우리는 AI를 숭배하지 않는다 | <i>Discern</i> |
| ③ | 우리는 말씀으로 더 깊이 돌아간다 | <i>Ad Fontes</i> |
| ④ | 우리는 인간을 더 온전하게 형성한다 | <i>Formation</i> |
| ⑤ | 우리는 컴퓨트 빈국을 버리지 않는다 | <i>Justice</i> |
| ⑥ | 우리는 모든 곳을 안디옥으로 연결한다 | <i>Polycentric Mission</i> |
| ⑦ | 우리는 길 위에서 육신이 된 복음을 살아낸다 | <i>Incarnation</i> |

제 4 강 의 세 라 틴 어

AD FONTES

근원으로 돌아가라

성경과 복음과 그리스도로 돌아간다

AD FUTURUM

미래를 향하여 가라

두려워 과거로 도망가지 않고 다가오는 문명 속
으로 들어간다

IN VIA

길 위에 있으라

건물 안에서 논평하지 않고 사람이 살아가는 현
장으로 나간다

미래로 가장 멀리 가기 위해 가장 깊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Ad Fontes와 Ad Futurum은 반대가 아니다.

DISCERN · GUARD · FORM · GO · WITNESS

분별하라 · 지키라 · 형성하라 · 나아가라 · 증언하라

길 위의 교회 — 신학적 선언문

AI 문명이 더 높은 지성을 약속할 때

→ 교회는 지혜를 말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이 더 강한 인간을 약속할 때

→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한다

생명공학이 더 긴 생명을 약속할 때

→ 교회는 부활을 말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이 인간을 넘어가자고 할 때

→ 교회는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초연결 사회가 모든 것을 연결할 때

→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회복한다

특이점이 새로운 미래를 약속할 때

→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창조를 선포한다

그리고 세상이 가상공간으로 들어갈 때, 교회는 다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

제4강의 신학적 중심축

WORD

말씀으로 돌아가고

WAY

길 위로 나가며

PRESENCE

사람 가운데 거하는 교회

여기에 새로운 안디옥과 다중심 선교와 디아스포라 교회와 AI 활용과 컴퓨트 빈국 선교가 모두 들어간다.
그러므로 새로운 안디옥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 위의 교회가 취하는 하나의 선교적 형태다.

WORD — WAY — PRESENCE

THE ROAD HAS CHANGED.
THE MISSION HAS NOT.

길은 바뀌었다. 사명은 바뀌지 않았다.

문명

Civilization

권세

Power

인간

Human

길

Way

AI가 길이 되는 시대에
교회는 다시 길 위에 서야 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 요한복음 14:6

우리의 길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한 분이다.